

‘전세가율 90%’ 육박단지...강동전세 위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 3년7개월 만 하락전환...매매가 여전히 오름세

서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90%에 육박한 단지가 발견되고 있다. 겹투자로 인한 강동전세 위험에서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1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4월 75.7%로 역대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왔다. 올해 1월 74.3%, 2월 74.1% 등까지 떨어졌다.

특히 서울 전세가율은 올들어 60%대에 진입했다. 올해 1월 69.3%, 2월 68.5%로 집계됐다.

서울 집값은 연이은 규제책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 전환하면서, 전세가율이 6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평균치일뿐이다. 여전히 서울 곳곳에서 ‘고(高)전세가율’ 단지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자치구별 전세가율은 강남3구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성북구와 중랑구, 구로구 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세가율은 강남구 53.3%, 서초구 55.9%, 송파구 57.5% 등이다. 용산구도 56.7%로 낮다. 즉 전셋값이 매매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들 3구 전세가율은 전월 대비 하락폭도 크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전월(57.3%)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성북구 80.6%, 중랑구 78.8%, 구로구 77.7% 등은 여전히 70%선을 웃돌고 있다. 특히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성북구는 전월(80.8%) 대비 0.0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강남3구의 경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재건축을 기다리는 낡은 집들이 많아 매매가 대비 전셋값

은 낮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구로나 금천, 노원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은 저렴하지만 전세 수요는 많은 지역은 여전히 전세가율이 높다”며 “특히 이들 자치구 내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소형아파트 등 전세 수요가 많은 매물의 개별 전세가율이 90% 넘는 곳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셋값 하락세에도 서울 곳곳에는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는 단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기준 광진구 구의동 ‘현대13차플라타리움’의 전세가율은 89.47%에 달했다. 구로구 오류동 ‘영풍’은 89.44%, 금천구 시흥동 ‘백산타운3단지’는 89.39%로 집계됐다.

중랑구 신내동 ‘백산’은 89.39%, 노원구 상계동 ‘은빛2단지’는

89.36%를 기록했다. 동작구 상도동 ‘현대PARK’ 89.36% 등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서대문구 홍제동 ‘중앙하이츠’ 89.29%, 성북구 동소문동7가 ‘브라운스톤동선’ 89.29%, 강동구 전호동 ‘강동역두산위브센티움’ 89.23%, 중랑구 면목동 ‘동아’ 89.23% 등이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겹투자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연이은 규제책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곳곳에는 여전히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가 상당하다”며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는 단지의 경우 겹투자 매물은 아닌지, 그래서 강동전세 위험이 있는지 않은지 살펴볼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현대삼호중공업, 친환경선박 시장 ‘두각’

IMO규제 앞두고 ‘황산화물 가스세정기’ 세계 최초 장착

현대삼호중공업이 오는 2020년부터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황산화물 배기가스 규제를 앞두고 ‘친환경선박 건조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세계 최초로 건조에 성공한 황산화물 가스세정기(SOX Scrubber)를 장착한 초대형 원유운반선 명명식과 인도서명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건조한 선박은 그리스 알미(Almi)사가 지난 2016년 8월 발주한 2척 중 첫호선이다. 원유 31만톤을 적재할 수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으로 길이 336m, 폭 60m, 깊이 30m의 크기이다.

선박의 방항타와 프로펠러에 연료 효율을 높이는 각종 설비를 장착했으며, 국제해사기구가 규제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최고급 사양으로 건조됐다.

특히 초대형 유조선 중 세계 최초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스세정기가 장착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선박에 설치된 가스세정기는 높이 11m, 폭 8.3m 규모로 배기가스를 바닷물로 세척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장비를 활용하면 선박이 내뿜는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을 기존 3.5% 이상에서 0.5%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대형 선박의 설치를 위해 선박의 굴뚝과 가스세정기가 설치된 하부 구조물의 크기를 340% 가량 키워 시공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IMO(국제해사기구)의 배기가스 규제를 앞두고 친환경선박 건조에서 사업실적을 쌓아 가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러시아의 소브콤 플로스사로부터 LNG 연료 유조선 세계 최초로 수주해 현재 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질소산화물(NOx)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배기가스 세순환장치(EGR : 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를 장착한 선박도 세계 최초로 선주사인 터키 디타스사에 인도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상선 9만 2000여 척 중 2020년 IMO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선형 20년 이상 되는 선박은 절반 가량인 4만 6000여 척에 달한다.

조선업계는 이 중 실제 교체가 예상되는 선박은 8000~9000여 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양·김형두 기자



“알뜰달락” 사랑으로 사랑 전해요

롯데를 김포공항공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오는 14일까지 2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화이트데이 상품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캔디 전문점 ‘위니버니’는 젤리, 캔디, 초콜릿, 캐러멜 등으로 구성된 특별 선물세트들을 패키지로 선보인다. 연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예쁜 소포백을 함께 제공하며, 인기 있는 브랜드 초콜릿을 할인 판매한다.

/롯데를 제공

금감원, 하나금융·은행 검사 착수

특별검사단 별도 편성... ‘채용비리 의혹’ 규명

금융감독원이 사의를 표명한 최홍식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13일 “최성일 전라각감독 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검사단을 꾸려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들 기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대상 기간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2013년이다. 최 원장은 특별보조 프로그램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협력업체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자금지원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신규 자금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협력업체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별 보증한도가 확대 적용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필요 시 검사대상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정한 검사를 위해 이번에 특별검사단을 별도로 편성했다”며 “검사 후 최종 결과만을 감사에게 보고함으로써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용과 관련된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이첩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삼성·샤오미, 불붙는 인도 쟁탈전

샤오미, 작년 4분기 인도서 처음 분기 점유율 1위 연간 점유율 왕좌 삼성, 글로벌 출시일 신제품 공개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의 시선이 인도를 향하고 있다. 전 세계 2위 규모로 부상한 인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오는 27일 플래그십 스마트폰 ‘미믹스2S’를 출시한다. 해외시장 공략 첫 번째 국가로 선택된 곳은 인도 시장이다.

작년에 인도에서 8개 스마트폰 모델을 내놓은 샤오미는 올해 미믹스2S를 비롯해 6~8개 모델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전작인 미믹스2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미믹스2S는 샤오미의 가장 비싼 모델이다.

6인치 OLED 디스플레이에 스냅드래곤845 칩셋, 8GB램(RAM), 후면 듀얼카메라, 3400mAh 배터리 등이 탑재됐다.

하지만 가격은 4만루피(약 65만원) 인파이 될 것으로 예상돼 갤럭시S9 대비 가성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인도에서 중저가를 비롯해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저변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샤오미는 올해 상반기에 현지 전용매장인 미홀을 100개로 늘리는 등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공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삼성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은 인도 시장에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 시리즈



를 글로벌 출시일에 맞춰 내놨다.

지난해 갤럭시S8 시리즈나 갤럭시 노트8을 글로벌 출시일보다 1~2주 늦춰 인도 시장에 공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이 샤오미의 매서운 추격을 뿌리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삼성은 현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 바르티 에어텔과 손잡고 LTE 주파수 결합 기법(Carrier Aggregation)으로 일반 스마트폰보다 2.5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제공했다.

삼성도 삼성페이 제휴 은행, 기프트카드 판매점 등을 늘리고 삼성페이가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주는 ‘삼성리워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현지 생산 물량을 늘려 경쟁력을 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이머징마켓에서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새로운 격전지가 된 지 오래”라며 “삼성도 샤오미의 왕좌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 ‘한국GM·성동조선 여파’ 군산·통영 지원

1300억원 규모 자금 투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정부는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성동조선 법정관리 등으로 타격을 입은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지역에 13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 지역 한국GM 군산공장 등 협력업체와 군산 소상공인, 경남 지역 성동조선 협력업체와 통영 소상공인 등이다.

협력업체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1000억원, 중소기업벤처부 300억원 등 총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관련 지역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기존 보증·대출의 만기연장과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산업 구조

조정 등에 따른 지역 금융지원대책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이 활용하고 있던 기존 자금의 만기를 신속하게 연장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2016년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과 작년 군산지역 지원 당시 기존 자금지원 연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하루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이번 주 내 시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자금지원 연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정 지역이나 업종이 어렵다고 해서 시중은행이 일률적으로 여신을 축소하기보다는 지역경제의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지자체 ‘연말정산’ 12일부터 경정청구로 농민 공제 환급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도우미 서비스’ 지원

올해 1월 연말정산에서 2017년 귀속분 공제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12일) 이후부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부터 2017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양 등 중증환자

/뉴시스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아동 전세임대료 무상지원 확대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 임대료 무상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까지 낮춰서 지원해 준다.

또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법인 및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 하는 경우에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임대차리모델링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진학, 군입대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만 20세가 넘어도 전세임대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2016년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9343명으로, 보호시설에서 최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이다. /뉴시스